

'기회의 도시, 희망의 익산' 일궈냈다

도시 전반 안정화가 '기반'

정현을 시장이 이끈 민선 8기 익산시정의 1년은 도약의 시대로 평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익산형 일자리제에 잇달아 선정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룩하며 익산은 기회와 희망의 도시로 성장했다.

이같은 성과는 정 시장이 부임 초 막대한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청렴도 전국 꼴찌를 전북 1위로, 매니페스토 3년 연속 최고등급(SA) 등을 달성하며 도시 전반을 안정화한 것이 기반이 됐다.

특히 재선 시장에 당선된 후 집중했던 경제정책은 '안정'에 '성장'을 불어넣었다. 다이로움과 청년정책, 도심 속 명품 숲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단초가 되었고 수변도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는 익산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혁신을 담아낼 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익산 최초 3선 시장으로서 준비된 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정 시장은 앞으로 혁신성장을 이어가는 희망의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민선8기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익산형 일자리 본격화로 글로벌 식품산업 중심지 '우뚝'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 거둬

지역 대표정책 '다이로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청년시청·마을자치연금 등 각종 분야에서 모범사례 쏟아내

그동안 뛰어난 성장 발판 토대 산업경제 중심축 기반 다질 터 녹색공간 확대 정원도시 거듭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조성도

정 시장 "혁신성장 이어가는 희망의 속도 높여 나갈 것"

▲무엇이든 앞서가는 익산... 전국적 모범사례 수두룩

정현을 호는 지난 7년간 각종 분야에서 타 지자체를 앞서며 전국 최초, 최고로 꼽히는 모범사례들을 쏟아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농식품 상상모델인 익산형 일자리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식품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4년간 준비해온 대규모 프로젝트인 익산형 일자리는 하림과 함께 7,600여억원을 투입해 64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다이로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전국 최대인 20% 혜택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수료 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낮춘 다이로움 택시는 대기업 플랫폼을 앞서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익산청년시청'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선진지로 부상하며 국내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높은 성공률로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근로 청년들을 위한 '익산청년근로 청년수당',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마을자치연금'도 차별화된 익산형 경제 정책 사례로 꼽히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희망 익산... 국내 산업경제 중심축 '우뚝'

정현을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금까지 닦아온 도시 안정성과 성장 발판을 토대로 국내 산업경제 중심축으로 나아가길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

'식품'과 'KTX익산역'이 그 중심에 선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에 2단계에 위치한 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식품수도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새롭게 조성될 2단계는 ICT 기술과 문화가 접목된 식품문화 복합산단으로 오는 2028년까지 3,855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정 시장은 글로벌 식품시장을 공략한다. 첫 행보로 지난해 말 미국 KORTA 실리콘밸리 무역관을 방문해 푸드테크 분야 해외 투자유치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어 KTX익산역을 교통과 산업거점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 정부로부터 이미 사업 추진 담임성을 인정받은 익산역 복합개발은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한 국비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이곳에 복합환승센터와 환승지원시설이 건립되면 일도심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환승 유도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현지구 배산택지개발 이후 10여년만에 진행되는 각종 도시개발도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민영강 수변도시 프로젝트는 자연 친화



- 1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합동브리핑
- 2 미국마트에서 익산식품 판촉
- 3 다이로움카드
- 4 다이로움 나눔곳간 전경
- 5 익산방문의례 선포식
- 6 익산역 전경

적 요소와 도내 주요 관문이라는 점을 활용해 청년과 은퇴자가 공존하는 특화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합동개발(SPC) 방식으로 올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민영강 수변도시부터 최근 첫 삽을 뜨게 된 부송4지구 개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익산 전 지역에 걸쳐 안정적인 주거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 익산... 숲·여가 어우러진 녹색공간 대폭 확대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와 함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대해 원과 여가가 어우러진 녹색정원도시로 거듭난다.

금강의 절경이 내려다보이는 옹포면 합리산 자락에는 도내 유일의 '국립 치유의 숲'이 울림달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며 다양한 생태 보고로 변화된 금마 일대에는 생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다.

이취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왕궁축산단지는 친환경 생태정원으로 재탄생된다. 지난 5월 환경부의 자연환경 복원 시범사업 후보지에 2순위로 선정돼 사전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도심 어디서든 녹색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수도산과 마동, 모인 등 도심 속 공원 5곳을 조성하고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후대응 도시숲과 시민 체감형 정원을 조성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품격 익산...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도약'

도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익산방문의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내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

현재 지역별로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중심지로 다양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각각 분산되어 있는 유적들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가 금마 일원에 들어서며 백제 무왕의 탄생설화에 언급되는 마동자와 서동생거터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인 '송리근대역사문화공간'과 등록문화지원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은 물론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인프라와 함께 각종 콘텐츠 개발까지 병행해 국내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난다. 올해 시는 역사와 종교, 농촌체험 등 다양한 테마를 접목한 상품으로 관광객이 익산만의 특별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행복 익산... 맞춤형 복지로 누구나 살고 싶은 환경 조성

시는 세대별 맞춤형 복지 정책과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시민들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 유치한다. 이미 유치전에 돌입한 국립 희귀질환센터를 포함한 산재전문병원, 어린이 전문병원 등을 건립해 보건 의료 기능을 집적화한다.

이어 직접 발로 뛰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익산형 복지 시스템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신고 창구인 '익산 주민톡'과 정부 지원보다 확대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마을복지리더로 구성된 '이웃(愛) 돌봄단' 등을 운영해 사각지대 발굴과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 육아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정책과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생활권을 구축할 예정이다.

▲혁신 익산... 신산업 중심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는 그린바이오와 홀로그램 등 미래 기술 중심의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산업지평을 재편하고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는다.

특히 바이오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합영을 일원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동물웰스케이 클러스터의 컨트롤 타워가 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올 연말 완공된다.

바이오식품과 농생명 분야를 특화할 재산업 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

진하기 위해 공영개발과를 신설했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홀로그램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도 확고히 다진다. 이미 각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시는 상용차와 문화재 복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앞으로 홀로그램을 연계한 익산형 IT 벨리까지 구축해 청년 장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